논어 9편 자한 12장 · 원문·풀이

子疾病，子路使門人爲臣。病間，曰：「久矣哉，由之行詐也！無臣而爲有臣，吾誰欺？欺天乎？且予與其死於臣之手也，無寧死於二三子之手乎！且予縱不得大葬，予死於道路乎？」

독음 · 자질병 자로사문인위신 병간 왈 구의재 유지행사야 무신이위유신 오수기 기천호 차여여기사어신지수야 무녕사어이삼자지수호 차여종부득대장 여사어도로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로가 제자들을 가신처럼 꾸미자 공자는 지위가 없는데 있는 척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. 제자들 손에서 죽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疾 병 질 질 / 病 병 병 병 / 路 길 로 로

使 하여금 사 사 / 門 문 문 문 / 人 사람 인 / 爲 할 위

臣 신하 신 신 / 間 틈 간 간 / 曰 가로 왈 / 久 오랠 구 구

矣 어조사 의 / 哉 비로소 재 재 / 由 말미암을 유 유 / 之 갈 지

行 다닐 행 행 / 詐 속일 사 사 / 也 어조사 야 / 無 없을 무 무

而 말이을 이 / 有 있을 유 / 吾 자기 오 오 / 誰 누구 수 수

欺 속일 기 기 / 天 하늘 천 천 / 乎 어조사 호 / 且 또 차 차

予 자기 여 여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其 그 기 / 死 죽을 사 사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手 손 수 수 / 寧 편안할 녕 녕 / 二 두 이 이

三 석 삼 삼 / 縱 늘어질 종 종 / 不 아닐 불 / 得 얻을 득 득

大 클 대 대 / 葬 장사 지낼 장 장 / 道 길 도 도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